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67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52명 검사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 발표
- ‘전국 유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매월 신청 가능
- “자가격리 이탈 꼼짝마” 제주도-유관기관 모의훈련 실시

2020. 4. 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 4. 8.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 4. 8.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12명 (격리 중 8명, 격리해제 4명)

구분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확진자 접촉	해외 입국
제주	3,492	12	4	8	0	3,480	87	3,393	140	409*
일일증감	+85	0	0	0	0	+85	+1	+84		
전국	486,003	10,384	6,776	3,408	200	475,619	17,858	457,761	격리해제 463	

※ 전국통계는 질병관리본부, 제주통계는 자체 집계 통계 /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 해외방문이력 자진신고자 검사내역[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구분	검체채취			검사내용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양성	음성	확인 중
4/6	35	33	2	35	-	35	0
4/7	52	37	15	52	-	15	37
누계(3.30.~)	466	370	96	466	2	427	37

※ '20.4.8. 00시 기준 제주도 자체통계

□ 자금지원동향('20.4.6. 기준)

구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관광진흥기금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접수	15건/ 241명	837건/ 9,537명	235건	13,026건	217건	10,200건	3건	1,082건
처리	4건/ 0.11억	34건/ 2.95억	100건/ 37억	5,541건/ 2,128억	81건/ 22.9억	2,907건/ 843.7억	9건/ 10.9억	962건/ 1162.2억

□ 입도객 현황 ['20.4.7.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2,393명 (작년 같은 날 대비 △70.1%, 전일 대비 -3.7%)

구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2,393	12,363	30	4	3	23
	2019년	41,462	35,587	5,875	2,378	183	3,314
	증감률	△70.1%	△65.3%	△99.5%	△99.8%	△98.4%	△99.3%
누계 (2.23.~)	2020년	689,800	683,123	6,677	548	627	5,502
	2019년	1,701,217	1,511,736	189,481	105,622	10,891	72,968
	증감률	△59.5%	△54.8%	△96.5%	△99.5%	△94.2%	△92.5%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집계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4. 8.(수)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 없음 ☒		사진: 있음 ☐ 없음 ☒		후속자료: 있음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52명 검사

-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내국인 37명, 외국인 15명 추가 검사 실시... 총 466명 검사 -

-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 52명(내국인 37·외국인 15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 제주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제주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 지난 7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52명 중 15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나머지 37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8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 피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 이로써, 4월 8일 00시 기준 도내에서는 총 466명(내국인 370명·외국인 96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2명이 양성(확진)판정을 받아 즉시 입원치료에 들어갔다.

□ 한편 국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내 자가격리자는 4월 8일 00시 기준 140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 이와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409명이다.

□ 7일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은 총 12,393명이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70.1%가 감소했고, 전일 보다는 3.7%가 감소한 수치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양기정 재난대응과장 064) 710-3630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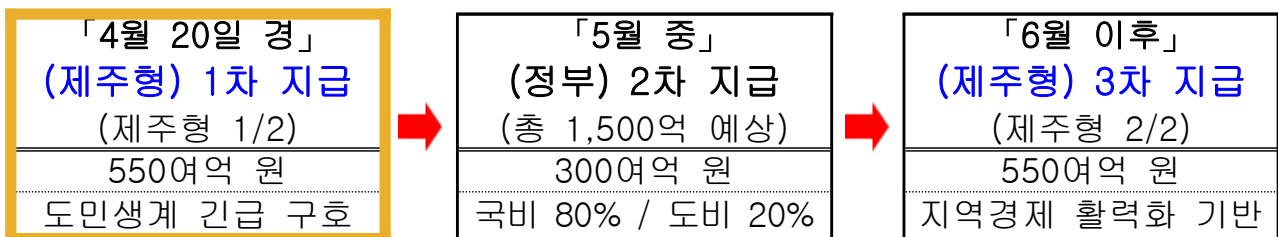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 발표

- 생계지원 위한 긴급구호에 초점... 총 3회에 걸쳐 1,400억 원 현금 지급 -
- 4월 신속집행 후 5월, 6월도 지급... 4월 20일 경 1차 신청접수 예정 -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 5월로 예상되는 정부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을 고려하면 총 3회에 걸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400억 원 규모이다.
- 제주도는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4월 중으로 1차 지급을 신속히 시행하고, 연이어 5월 중 정부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입과 6월 이후 3차 지급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구호로써 총 5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2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

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으로 도내 약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추산된다.

○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다.

○ 5월 예정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6월경 3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내 4인가구 기준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4월 20일 경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자격 및 대상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 신청기간 내 신청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전화상담 전담대응팀 또한 운영할 예정이다.

□ 원희룡 도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며,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 문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강만관 064) 710-2230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안우진 064) 710-2310

비상경제지원단 비상경제상황실장 고경민 064) 710-3950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고윤성 064) 710-2231

‘전국 유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매월 신청 가능

- 제주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분기별→매월’ 지급시기 변경 -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매월 지급한다.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 올해는 195개 업체, 71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4억 3,300만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 3개월 이상 경과(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 지원 조건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월 3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해당 사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 제주도는 분기별로 1회 지급방식에서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187개 업체, 679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2억 9,800만 원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 한편, 제주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부담 경감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예산액은 19억 8,100만원으로 1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320여명이 대상이 된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문부자 장애인일자리팀장 064) 710-4551

[참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참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 ' 20년도 예산: 3,433백만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일반사업체
 - 장애인표준사업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 ※ 단,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비영리법인 제외
- 지원조건 : 월16일 이상 근무원칙, 최저임금이상 지급한 사업체
- 지원시기 : 고용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3개월 소급지원)
- 지원 금액

(단위: 1인 / 월)

구 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도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 구비서류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최초 신청 , 변동사항 발생 시, 매해 1분기 신청 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 변동사항 발생 시, 매해 1분기 신청 시)

☐ 2019년도 지원 실적

구 분	지원 실적		
	사업장 수 (개소)	지원 인원(명)	지원금액(백만원)
계	187	679	3,298
제주시	148	556	2,741
서귀포시	39	123	557

“자가격리 이탈 꼼짝마” 제주도유관기관 모의훈련 실시

- 9일 오후 공항 일원서 진행... 112신고→위치추적→수색→재격리 전 과정 훈련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오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와 국제공항경찰대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모의훈련에는 112·서부경찰서·보건소·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다.
-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등으로 진행된다.
- 제주도는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8일 현재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710-2910

-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방법
 9.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0.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15일간(2020년 3월 22일 ~ 4월 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주세요

| 국민 행동 지침 |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 시키기

|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2020.3.23.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참고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감염병
NOW
1339
감염관리본부 콜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외국민 40여명과 300만명 이상이 발병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2020.3.6. 1/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가 커져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해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2020.3.6. 2/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와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우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2020.3.6. 3/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2020.3.6. 4/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가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2020.3.6. 5/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기상담전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국가트라우마센터** | <https://nct.go.kr>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

2020.3.6. 6/6

2020.3.7.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발행일 : 2020.2.27.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